

始興 芳山洞 初期靑磁 窯址 出土品을 통해 본 中部地域 博築窯의 運營時期*

李 鍾 玟**

차례

I. 머리말	2. 出土遺物의 比較
II. 芳山洞 가마遺蹟과 出土品의 特徵	IV. 中部地域 博築窯의 運營時期 推論
1. 芳山洞 가마遺蹟의 特徵	1. 出土遺物과 編年資料
2. 芳山洞 出土遺物의 特徵	2. 博築窯 運營時期의 推論
III. 他 地域 發掘窯蹟과의 比較	V. 맺음말
1. 가마遺構의 比較	

1.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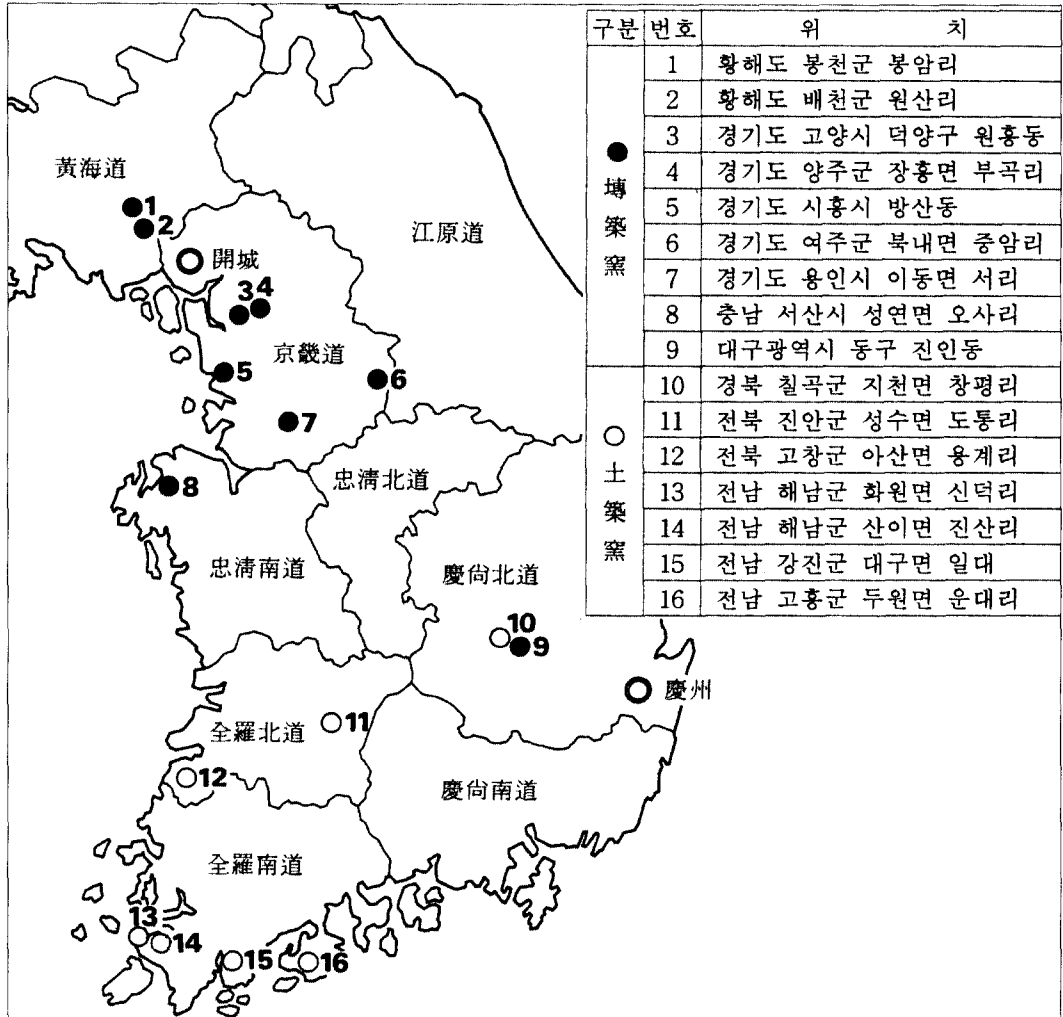
한반도의 청자제작 초기단계를 관찰해 보면 몇 가지의 서로 상반되는 특징들이 둘로 구분되는 독특한 현상이 발견된다.

그 중의 하나는 도자기를 굽는 가마의 築窯法이 두 그룹을 형성하며 그들이 분포하는 중심지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벽돌을 주재료로 축조한 벽돌가마 [이하 博築窯]는 경기도, 황해도, 충청남도 북부를 위시한 중부지역 일대에 분포하고 있으며 진흙을 중심재료로 활용하는 진흙가마 [이하 土築窯]는 전라도 일대의 남부권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地圖 1 참고).¹⁾

* 이 논문은 2000년 5월 27일 제 43회 전국역사학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海剛陶磁美術館 學藝研究員

1) 전축요와 토축요에 대한 지리적 개념과 구분은 尹龍二선생의 활발한 지표조사 연구성과에 힘입은 바 크다 (尹龍二, 「高麗陶瓷窯址의 研究」, 『考古美術』 171·172(韓國美術史學會, 1986), pp. 59~72).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초기청자의 개념이 전축요와 토축요로 구분되며 상대적인 발전단계가 있었음을 제시한 것은 崔健선생의 연구에 의해서이다(崔健, 「韓國初期靑磁의分類と變遷」, 『東洋陶磁』 卷 2(東洋陶磁學會, 1992~1994), pp. 41~64). 초기청자의 발달과정이 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견해



地圖 1. 韓國의 初期靑磁 窯址 分布圖

또 하나의 특징은 도자기의 제작방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전축요에서 생산된 도자기는 중국의 청자나 백자를 모델로 한 생산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다량의 청자와 소량의 백자가 동반제작되고 있었던 점이 눈에 띈다. 이에 비하여 토축요에서는 전라도 일대에서 발견되는 토기에 청자의 조형이 접목된 듯한 생산품들이 중심을 이루며 다량의 청자와 소량의 흑유자가 동반생산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청자제작의 초기단계는 상반되는 특징으로 인해 두 개의 계통이 존재했던

는 본 연구의 초석이 되었다.

것으로 보인다²⁾ 현재까지 이들이 어떠한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근거들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국청자의 발생문제를 포함하여 도자변화의 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 초기청자의 모습은 많은 假說에도 불구하고 絶對年代를 알 수 있는 자료의 부족으로 아직까지 많은 異論이 공존하고 있다.³⁾ 다행히도 1980년대 이후 경기도 용인시 서리와 황해도 배천군 원산리에서의 가마터발굴은 이러한 쟁점들을 풀어나가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으며 특히 1997년, 98년에 실시한 시흥시 방산동 가마유적은 발굴상태가 대단히 양호하여 博築窯系의 初期靑磁를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다 주었다.

따라서 단편적이기는 하나 중부지방의 전축요의 연구에 관한 기본자료가 많이 축적된 상황이며 이를 통하여 한국의 초기청자에 대한 접근이 조금 더 가시화 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글에서는 발굴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진 가마유적과 출토품들을 비교해 보고, 편년자료와의 유사점을 찾아 구체적인 운영시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인 관점으로 전개하는 것인만큼 접근방법에는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II. 芳山洞 가마遺蹟과 出土品의 特徵

시흥 방산동 가마터는 1990년대 초반경에 들어와 학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생산유적이다. 이 지역의 조사는 1997년과 1998년 해강도자미술관이 실시하였으며 발굴조사 결과는 조만간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이다. 이제 한반도 중부지역 전축요의 구조와 생산양식을 이해하기 위하여 전면발굴조사가 진행된 시흥 방산동 가마유적의 구체적인 모습과 출토유물을 간략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2) 전축요와 토축요의 선후관계는 현재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대체적인 성격은 相異하게 구분된다. 이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마구조	분포지역	주 생산품	가마 길이	도자의 조형	요 장 규모
전축요계	중 부 권	청자, 백자	약 40m내외	중국식>한국식	대규모 소수
토축요계	남 부 권	청자, 흑유	약 20m내외	한국식>중국식	소규모 다수

3) 주지하다시피 한국청자의 발생문제는 日帝强占期부터 이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기준에 따라 다양한 학설이 제시되어 왔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학설은 통일신라 발생설과 고려시대 발생설로 압축된다. 전자의 경우는 각각 9세기전반, 중반, 후반으로 보는 견해가 알려져 있으며 후자는 10세기 후반에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관한 論旨의 근거와 논리전개 방법에 대하여는 연구된 성과가 많이 알려진 상태이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겠다.

1. 芳山洞 가마遺蹟의 特徵

시흥 방산동에서는 청자가마 1基를 발굴하였고 주변지역에서 2基의 토기가마를 추가로 확인하였다. 여기서 조사자의 주목을 끌었던 것은 가마의 규모와 남아 있는 상태였다. 다른 지역에서 발굴 조사된 가마유적과는 다르게 방산동의 청자가마는 대단히 상태가 좋아 함몰된 천정부루를 제외하고는 모든 구조가 비교적 잘 남아 있었다. 이러한 덕분에 방산동 가마는 초기 청자가마의 한 유형인 벽돌가마의 규모와 운영상태를 이해하는데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노출된 가마는 하나의 基盤으로부터 시작하여 몇 차례 걸친 대규모의 보수과정을 거치면서 오랫동안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최초의 築窯 단계로부터 규모를 줄여가면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보수는 크게 2차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최초의 가마규모는 총 길이가 39.1m, 가마 내벽 너비가 222cm였으며 마지막 단계에는 길이 35.8m, 내벽폭 너비 90~95cm로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다(圖 1).⁴⁾

소성실 좌우측에서는 7개씩의 측면출입구가 발견되었는데 조사결과 처음에는 우측벽면에 출입구를 내었으나 다음 단계는 좌측벽면을 이용했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다시 우측벽면에 측면출입구를 내어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최초과정에서 가마의 조성은 25×15cm가량의 벽돌을 낮은 온도로 구워 이용하였으나 改築과정에서는 이들을 재활용한 모습도 발견되었다. 방산동 가마유구의 축요 및 개축상태를 비교하여 알기쉽게 표시한 것이 다음의 <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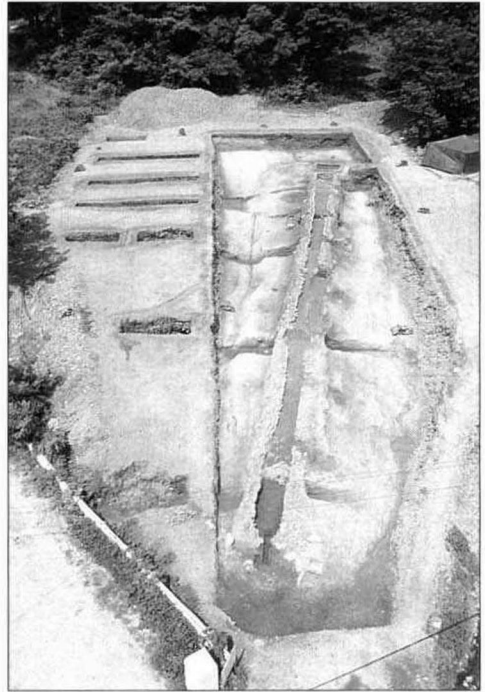


圖 1. <芳山洞 靑磁窯址 全景>, 9세기 후반~10세기 海剛陶磁美術館 發掘調査.

4) 방산동 청자가마는 가마를 줄이면서 대대적으로 2차에 걸쳐 보수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이를 기준으로 최초의 가마를 1차가마, 다음 단계에 줄어든 가마를 2차가마, 폐요직전의 가마를 3차가마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表> 芳山洞 가마遺構의 築窯 및 改築狀態 比較表

개 축 상태	1 차 가 마	2 차 가 마	3 차 가 마
가 마 길 이	39.1m	36.5m	35.8m
소성실 너비	222~225cm	160~172cm	90~95cm
측면 출입구 위치	좌우측→중간에 좌측으로 이동	다시 우측 이동	우측 계속 사용
폐기물 중심 퇴적 위치	최초 우측→좌측	우측	우측
사 용 기 간	가장 오래 사용한 듯함	1차가마보다는 짧으나 비교적 장기간 사용	단기간 사용한 듯

* 여기서 좌측, 우측은 가마를 아궁이에서 굴뚝 쪽으로 보았을 때의 위치를 말함

이 유적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청자가마 주변에 先行하는 토기가마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다. 토기가마는 발굴이 이루어진 청자가마터 바로 옆에서 1기가 확인되었고 또 다른 하나는 가마남쪽 약 50m 지점의 구릉사면에서 중간이 잘려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청자가마 옆에 있는 토기가마는 시굴조사를 통하여 일부나마 구조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 모습은 고구마를 반으로 자른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시굴지역에서 노출된 토기가마의 규모는 길이가 약 10m내외, 내벽폭이 300cm 가량이었으며 통일신라 중·후반경에 운영된 토기가마의 구조와 계통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한편 이 유적의 중요성을 더해 준 것은 청자가마의 좌우측에서 3.5m에 달하는 많은 양의 폐기물퇴적층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이다(圖 2).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했던 土層은 좌우에서 각각 10개가 넘었으며 폐기물이 쌓인 순서는 가마의 측면출입구가 어느 방향에 있었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였다. 그렇다면 앞에서 언급한대로 최초의 주 퇴적은 가마의 우측방향에 형성되었고, 다음에는 좌측방향으로, 마지막 단계에는 다시 우측방향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청자가마의 좌측퇴적은 토기가마의 우측에 해당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圖 2 참고)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토기와 청자간의 先後關係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었다. 조사과정에서 토층의 맨 아래층에는 토기파편이, 그 위로는 다량의 갑발편과 청자들, 그리고 소량의 백자편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土器廢棄層과 磁器廢棄層 사이에는 窯業



圖 2. <芳山洞 靑磁窯址 堆積層 全景>, 9세기 후반~10세기, 海剛陶磁美術館 發掘調査

期間의 空白을 말해주는 모래층과 같은 間層이 존재하지 않아 토기요업이 끝나고 바로 자기요업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⁵⁾ 이것은 방산동 일대의 요업상황이 어느 시점에서인가 土器에서 磁器로 급작스럽게 변화해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 지역에서 토기가마와 초기청자가마가 함께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전통적인 요업구조에 새로운 기술이 유입되는 단계의 변화상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2. 芳山洞 出土遺物의 特徵

방산동 가마에서는 다량의 청자와 소량의 백자가 수습되었다. 이곳에서 발견된 도자기로는鉢(대접), 碗, 碟匙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밖에 花形碟匙, 蓋, 廣口瓶, 油瓶, 注子, 壺, 盒, 祭器, 長鼓, 蓋托, 窯道具類 등의 예도 보이고 있다(圖面 1, 2, 3 참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습된 방산동의 유물이 크게 3단계에 걸친 양식변화를 보인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근거는 각 器形들간의 형식변화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예들을

5) 間層은 文化가 존재하지 않는 층으로서 모래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시간의 공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시흥 방산동 발굴현장의 경우는 토기층 위에 간층이 존재하지 않고 청자층이 바로 연결됨으로써 토기가마 폐요 이후 곧 바로 청자요업이 개시되었음을 알게 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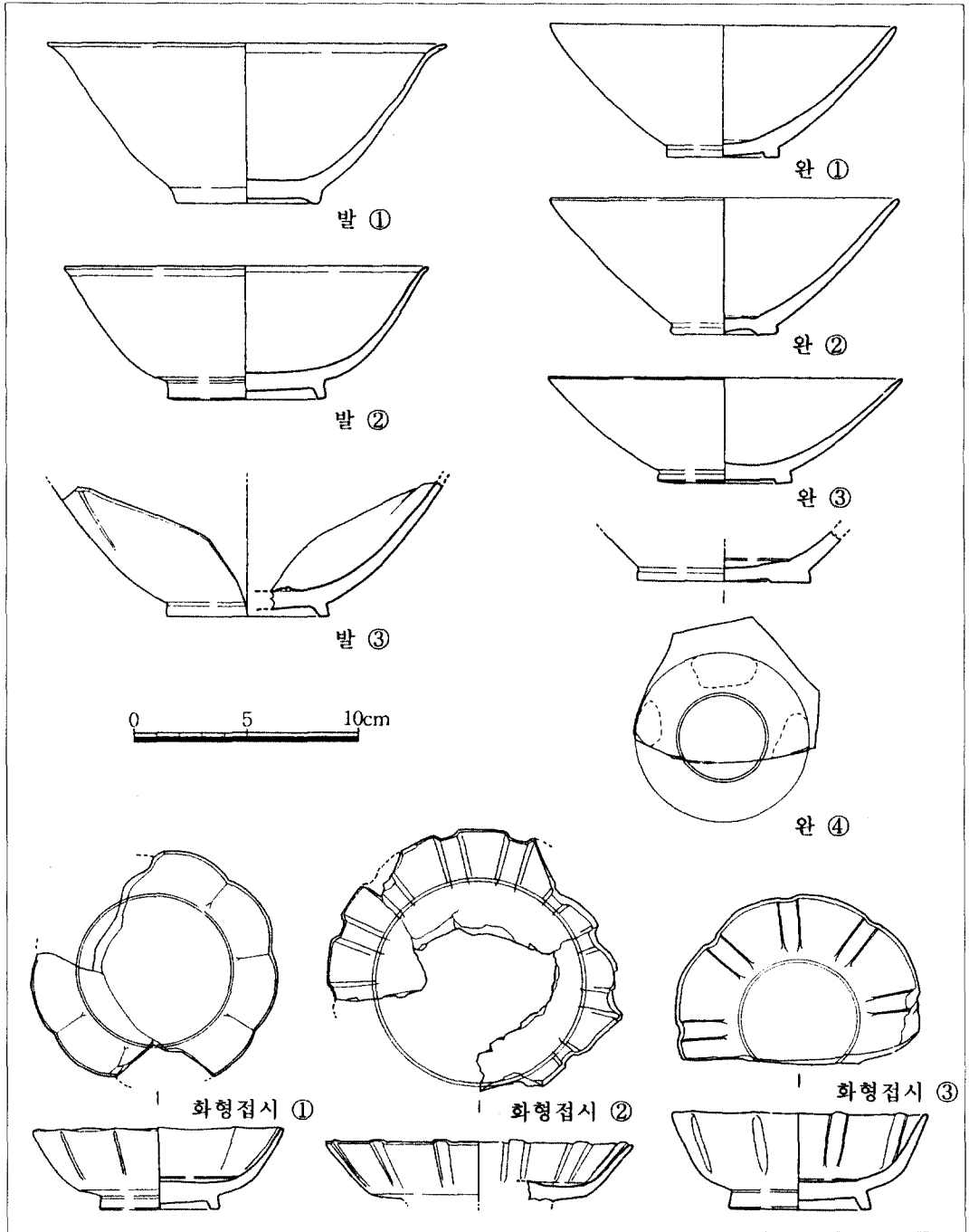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분류한 것이나 모든 유물들에서 변화의 단계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변화는 발견된 개체수가 비교적 많은 유물들에서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많은 양이 출토된 예들을 언급하였다. 발견되는 양상이 대부분 파편인 관계로 완전한 형태를 추정해 볼 수 있는 復元圖를 제시하여 그 특징들을 알아보기로 한다.

·鉢 - 여러 가지 기형중에서 그릇의 깊이가 깊고 지름이 넓은 계통은 모두鉢로 분류하였다. 방산동에서 수습된 발은 발견된 유물중에서 碗 다음으로 보편적인 기종인 동시에 출토양도 많은 편이다. 이곳에서 발견된 발은 모두 3중으로서 대체로 구연이 밖으로 벌어지고 굽깎음새가 예리하며 높은 굽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작된 발의 형태로는 그릇의 두께가 얇고 구연이 밖으로 많이 외반된 유형과(圖面 1의 발 ①), 그릇의 하단부가 양감이 있는 유형(圖面 1의 발 ②), 외면에 참외를 표현하려한 세로의 홈이 있는 花形(圖面 1의 발 ③, 圖 9)이 있다. 이들의 내면은 모두 內底圓刻이 없는 둥근 곡면으로 되어 있으며 폐기물퇴적부의 上下에서 고르게 발견되고 있어 형식간 선후관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분명하게 알기가 어렵다. 또한 발은 많은 수량에도 불구하고 백자로 제작된 예가 거의 드문 편이었다.

·碗 - 완은 방산동에서 출토된 유물중에서 50%가 넘을 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완은 측사면의 기울기와 굽의 너비, 굽을 깎은 모양에 따라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형식이 크게 네 가지가 존재하고 있다. 그 종류를 보면 측사면의 경사가 급하고 內底面이 曲面이며 굽바닥이 아래로 쳐진 계통(圖面 1의 완 ①)과, 內底面에 희미한 圓刻이 있고 굽바닥이 아래로 튀어 나왔으며 굽은 해무리굽에 가까운 유형(圖面 1의 완 ②), 측사면이 많이 벌어지고 내저면과 굽바닥이 편평하며 굽깎음새가 예리한 선해무리굽유형(圖面 1의 완 ③),⁶⁾ 내저에 圓刻이 있고 접지면이 중국의 玉璧底처럼 대단히 넓은 계통 등이 있다(圖面 1의 완 ④).

이들이 갖고 있는 형식변화는 ②유형이 초기에는 많지 않으나 전체적인 수량에 있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①유형이 초기부터 후기까지 가장 꾸준하게 제작되면서도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③유형이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초기에는 모든 유형들이 다 존재하나 측사면이 가장 벌어진 ③유형이 점차 도태되는 현상을 보임으로써 전체적으로 후기로 갈수록 기벽이 오므라드는 유형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6) 초기청자 碗의 한 형식인 소위 '선해무리굽'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2000년 11월 18일에 있었던 '제 2차 용인 서리 백자요지의 재조명' 학술심포지엄에서는 이 문제가 재론되었으며 최초 이 용어의 사용자였던 박순발교수는 용어자체와 시기개념으로서의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차후에는 새로운 용어가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로써는 이러한 형태의 굽을 지칭하는 마땅한 용어가 없는 상황이므로 여기에서는 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圖面 1. 芳山洞 出土 鉢, 碗, 花形碟匙의 種類

특히 ③유형은 내저면이 넓어 갑발안에서 완들을 2~3씩 포개구울 때 항상 밑에 위치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유형이 줄어들어 가는 것은 방산동 요업의 후반부에 완을 굽는 방식에서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해준다.

완은 청자나 백자 모두에게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④유형의 경우는 백자로만 제작된 듯 청자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수량에 있어서도 가마터 전역에서 불과 10片 정도가 발견되었을 뿐이다.

· 花形樞匙 - 화형접시는 크게 세가지의 유형이 알려지고 있다. 제작된 종류의 하나로는 접시의 구연부 바깥측면에서 내부방향으로 도구를 이용하여 꼭꼭 눌러줌으로써 구연이 고불고불하게 형성된 단순한 계통이 있다(圖面 1의 화형접시 ①). 또 하나는 측사면이 많이 꺾여진 소형 折腰樞匙의 내외면에 도구를 이용하여 강한 누름자국을 남김으로서 凹凸形의 구연단면이 느껴지는 유형이 해당된다(圖面 1의 화형접시 ②). 남은 한 유형은 ②유형의 직선적인 형태가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이는 퇴화된 계통을 들 수 있다(圖面 1의 화형접시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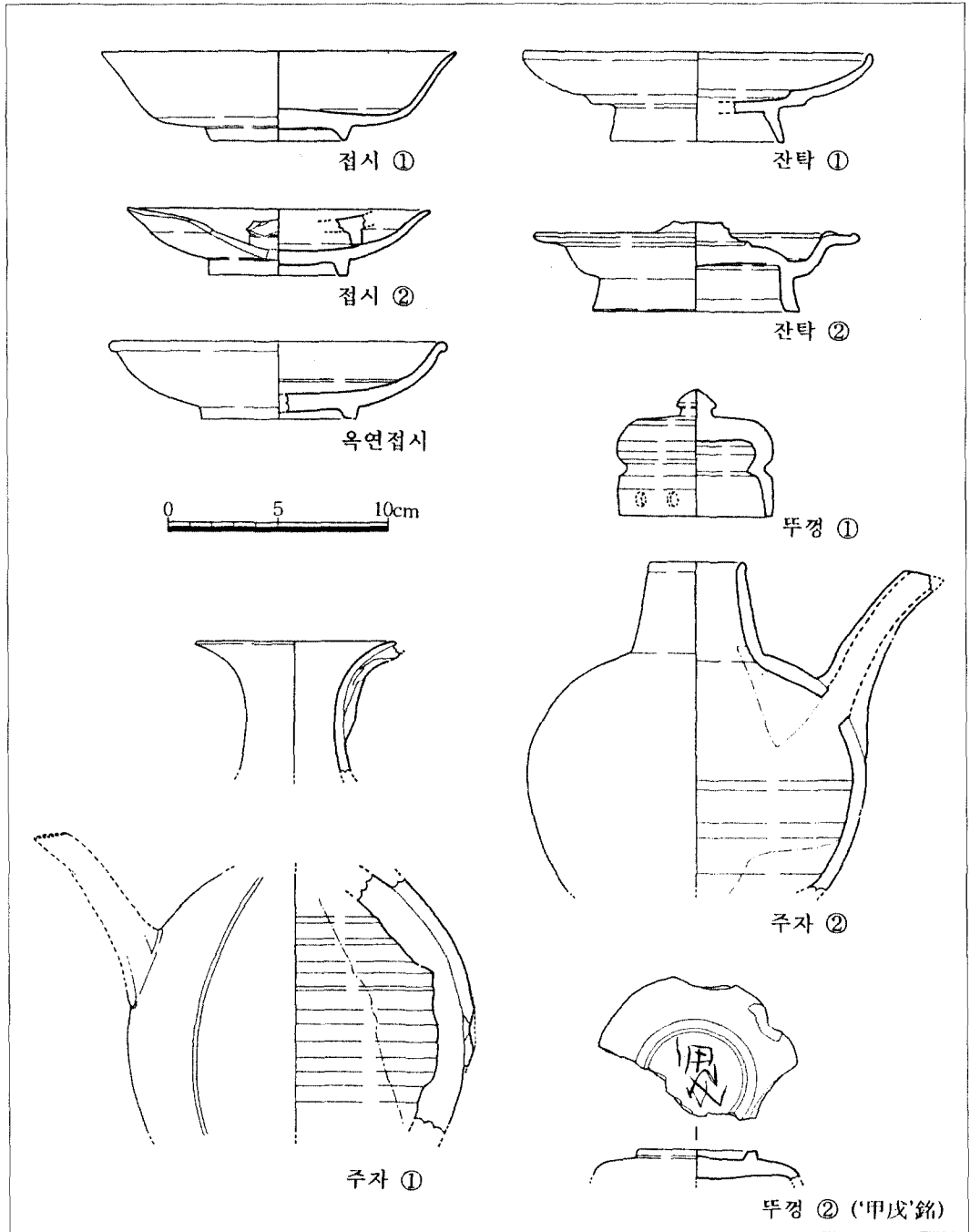
방산동에서 볼 수 있는 화형접시의 제작경향은 가마퇴적 초기단계에서 ①, ②유형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후반기에 ③유형이 제작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③유형은 質的으로 粗質化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西里에서의 경우처럼 후반기로 갈수록 대충만드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⁷⁾

· 樞匙 - 접시의 경우는 여러 가지 계통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서리나 원산리와 비교되는 동일 유형만을 모아서 언급하기로 한다. 방산동 출토 접시의 형태중에는 구연부가 살짝 오므라들거나 외반하는 형식이 공존하는데 그중에서도 내반하는 형식이 양적으로 많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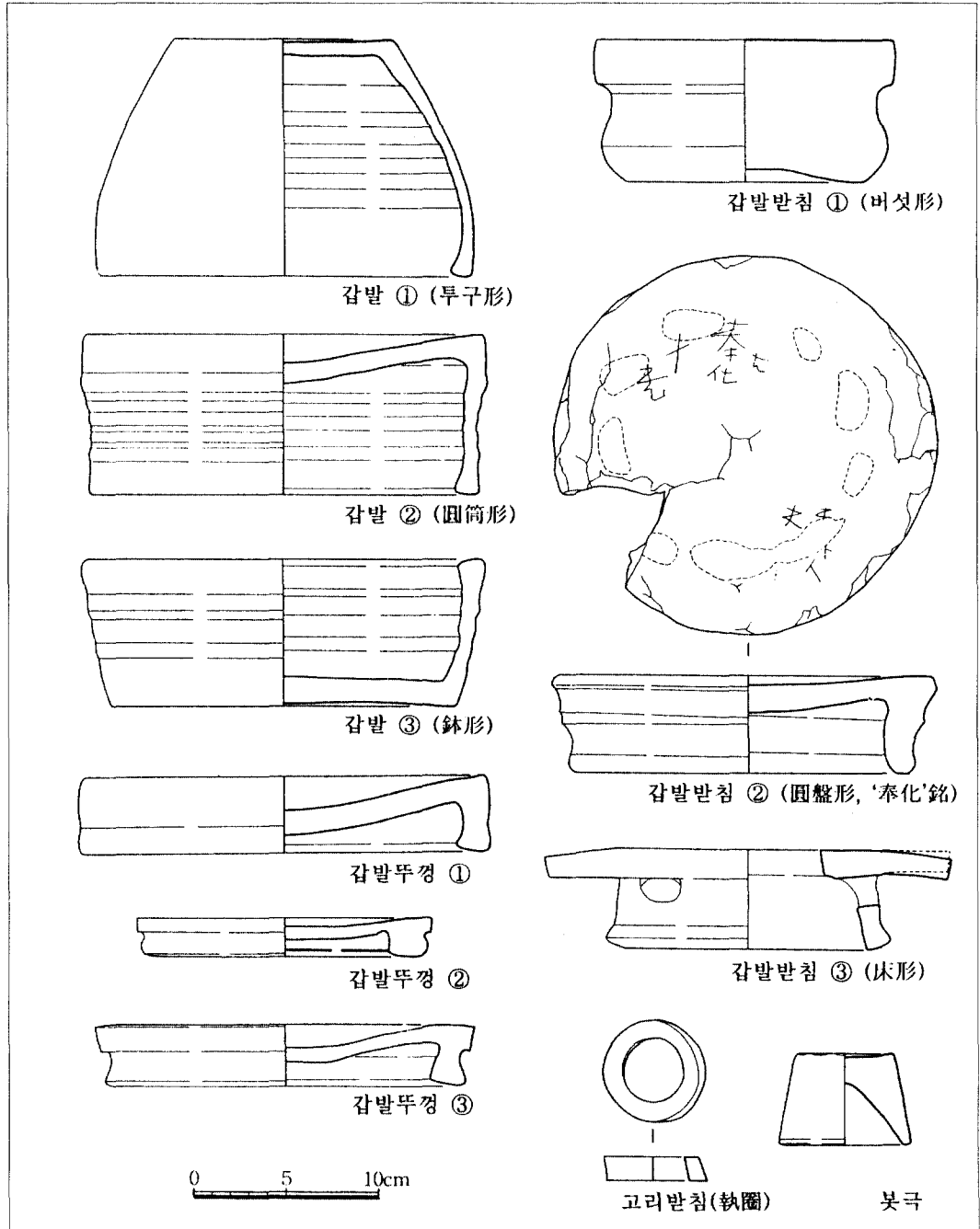
가장 눈에 띄는 계통으로는 折腰樞匙로서 이 유형은 측면선이 심하게 꺾여 있으며 굽이 역삼각형에 가까운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圖面 2의 접시 ①). 이 접시는 執圈이라고 하는 일종의 고리받침을 굽 안에 받쳐 갑발안에서 한 개씩 번조하고 있으며 제작된 접시중에는 가장 고급품에 속한다.

접시의 또 다른 형식으로 중요한 것은 구연이 밖으로 말린 형태의 玉緣形접시이다(圖面 2의 옥연접시). 접시나 잔에서 주로 보이는 옥연은 초기단계의 경우 구연이 밖으로 도톰하게 말려 있으나 이 유형은 후기단계의 것으로서 끝을 뭉툭하게 만들어 유사한 효과를 낸 것이다.

7) 花形樞匙를 초기청자의 표식유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형식구분과 편년안을 시도한 것은 최건선생이다(崔健, 「韓國初期靑磁의分類と變遷」, 『東洋陶磁』VOL. 22(東洋陶磁學會, 1992~94), pp. 41~64). 이 글에서는 용인서리 IV층출토의 구연을 오려낸 예를 가장 이른 것으로 보고 III층 출토의 누름선이 강한 예를 다음 단계의 것으로 분류하였다.



圖面 2. 芳山洞 出土 楨匙, 盞托, 注子の 種類



圖面 3. 芳山洞 出土 竈道具의 種類

이밖에도 방산동에서는 많은 종류의 유물이 발견되었으나 여기에서는 뒷장에서 비교가 될 수 있는 예를 골라 언급하고 다른 유물의 경우는 생략하기로 하겠다.

한편, 지금까지 살펴 본 개별적인 유물의 특징들 이외에 여기에서 수집한 자편의 관찰은 전축요에서의 陶磁生産樣式과 燔造法에 대해 많은 이해를 주기에 충분했다. 그중에서도 일반적인 상식의 틀을 깨 중요한 사실로는 전축요의 경우 磁器의 燔造에 있어서 초벌과정 없이 유약을 발라 한번에 구웠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함께 모든 자기는 대형의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匣鉢을 이용하여 구웠으며 한 갑발안에는 고리처럼 생긴 執圈을 받쳐 구운 최고급품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2~3개씩의 자기를 포개어 넣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또한 방산동에서 집권을 사용하여 변조한 예는 鉢이나 折腰樛匙처럼 구연이 벌어진 器種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방산동 유물의 변화가 3期로 구분된다고 할 때 집권의 사용 예는 초기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후에 점차 줄어 후기에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방산동 후기에 도자기의 질이 하락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Ⅲ. 他 地域 發掘窯蹟과의 比較

지금까지 시흥시 방산동에서 발굴조사된 가마구조와 출토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기존에 발굴조사된 京畿道 龍仁市 二東面 西里나 黃海南道 培川 郡 圓山里 窯址의 조사 결과와 유사점이 있어 수평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과정은 중부 지역에서 전축요가 갖고 있는 가마구조의 보편적인 특징과 製陶樣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1. 가마遺構의 比較

남한지역에서 중부지역 전축요의 규모가 발굴조사로 알려진 최초의 예는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서리의 가마터이다.⁸⁾ 서리 가마터는 湖巖美術館에 의해 1984~1988년 사이에 3차의 조사가 이루어졌는데⁹⁾ 80m가 넘는 대규모의 토축요 하단부에서 그보다 先行하는 약 40m에

8) 三星美術文化財團·湖巖美術館, 『龍仁西里高麗白磁窯 發掘調查報告書1』(1987); 三星美術文化財團, 『龍仁西里白磁가마터 3次發掘調查』, 『第24期 事業報告書』(1988); 金載悅, 『龍仁西里白磁窯址出土 磁片에 관한 科學的 分析 結果 報告』, 『美術史學研究』194·195호(1992. 9), pp. 73~75.

9) 현재 발간된 보고서는 1차조사의 결과만을 다루었으며 2, 3차에 대한 결과는 보고서 작업이 진행중이므로

달하는 전축요가 발견되었다. 주변의 퇴적에서는 모두 4개의 층위가 확인되었는데 퇴적상 상태가 가마의 구조변화와 정확하게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하층인 IV층을 포함하여 중간단계인 III층까지는 전축요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곳에서는 청자와 백자로 된 각종 발, 완, 접시, 항아리, 병, 제기 등과 각종 요도구류 등이 수습되었다.¹⁰⁾

주목해야할 또 하나의 중요한 발굴유적으로는 黃海南道 培川郡 圓山里 가마터가 있다. 이 가마터는 1989년과 1990년 북한의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하였으며 1基의 토기가마와 3基의 청자가마터가 확인되었다.¹¹⁾

이중에서 시선을 끄는 중요한 가마터는 2호가마로서 이 가마는 3, 4호 가마에 비하여 구조가 전형적인 전축요의 초기형태를 잘 간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마바닥의 최상층에서 편년자료인 '淳化銘' 靑磁祭器들이 출토됨으로써 가마운영시기의 下限을 추정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淳化는 北宋 太宗代의 年號로 이것이 사용된 시기는 990년~994년까지이다. 따라서 2호가마는 적어도 10세기말 이전에 운영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가마는 모두 3차에 걸친 보수가 있었으며 최초의 단계는 길이가 38.9m, 내벽폭이 190cm였고 마지막 단계인 4차가마는 규모가 줄어 길이 22.4m, 너비 80~100cm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가마의 좌측면에는 모두 7개의 출입구가 등간격을 이루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이 가마터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가마주변의 폐기물 퇴적층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가마내부의 除土작업에서 1차로부터 4차까지 유물이 수거되었으며 그 결과 층위별 유물을 통해 변화양상을 해석해 볼 수 있었다. 보고자에 의하면 원산리의 경우 제작유형에서 청자만 생산했을 뿐 백자는 생산하지 않았다고 한다.¹²⁾

가까운 시일에 간행될 예정이다.

10) 서리의 발굴은 퇴적양의 방대함으로 인해 아래층의 유물은 상대적으로 소량밖에 수습할 수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최상층과 최하층의 유물변화를 일목요연하게 알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확인된 磁片이 당시 제작양상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조사자의 견해에 따라 4개의 층중에 최하층을 IV층, 최상층을 I층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11) 전축요계 가마터가 한반도에서 맨 처음 조사된 것은 1959년 여름으로 황해남도 평천군 봉암리에서 이루어졌다. 발굴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총 길이는 44m에 달하며 내벽폭은 0.95m이며 내부에 칸을 두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간벽들이 많았다고 한다(리병선, 「황해남도 고려자기 가마터 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3-각 자유적 정리보고-』(과학원 출판사, 1963), pp. 236~246). 그러나 보고내용이 적고 사진이나 도면이 거의 게재되지 않아 구체적인 실체는 잘 알 수 없다. 참고할만한 본격적인 자료는 원산리 발굴조사를 계기로 출간된 자료들로서 이에 관한 보고서와 논고는 다음과 같다. 김영진, 「황해남도 봉천군 원산리 청자가마터 발굴 간략보고」, 『조선고고연구』(사회과학출판사, 1991년 2호), pp. 2~9. ; 同著, 「우리나라 자기생산의 지원문제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사회과학출판사(1991년 4호), pp. 18~28. ; 同著, 「봉천군 원산리 자기가마터」, 『조선유적유물도감』(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2), pp. 306~321. ; 리윤철, 「원산리가마터의 14C 연대측정결과와 그 해석」, 『조선고고연구』(1998년 3호), pp. 38~42.

지금까지 방산동 가마터 발굴 이전에 조사됨으로서 그 내용이 알려진 용인 서리와 배천 원산리 가마터의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제 앞 章에서 미리 살펴본 시흥 방산동 가마구조와의 비교를 통해 어떠한 특징들이 보이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아보기로 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특징은 가마의 규모가 유사하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방산동, 서리, 원산리 등지에서 발굴된 가마는 대체로 총길이가 40m 내외, 최초 내벽폭은 약 200cm 가량으로 규모가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측면출입구의 경우도 7개가 운용됨으로써 구체적인 구조에 있어서도 동일한 점을 보여 주었다. 이 사실은 중부지역 전축요의 築窯단계에서 공통된 기술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가마를 축조하는 기술은 단시일에 보고 배워 응용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관계로 같은 기준하에서 동일한 기술을 구사하는 기술자, 혹은 기술자집단의 지도하에서 가마가 제작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다른 특징은 가마운영상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해 가는 과정을 들 수 있다. 서리의 경우는 전모를 알 수 없었으나 방산동과 원산리에서는 차츰 가마를 줄여가면서 改築과 部分補修를 병행했던 과정이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마벽보수의 방식은 물론이고 가마의 폐요 직전에 운영된 요업의 상황에서도 유사점이 발견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방산동의 경우 최초의 新築단계시 가마의 내벽 너비안에 도자기를 쌓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匣鉢의 개수는 7개였다.¹²⁾ 그리고 발굴조사를 통해 마지막 窯床部에서 확인된 폐요직전의 갑발수는 3개였다. 이러한 현상은 방산동이나 원산리에서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가마의 운영과정에서 생기는 改築, 補修 등의 문제는 같은 방식으로 해결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가마의 신축단계뿐 아니라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같은 기술이나 습관하에서 일관성 있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유사점의 또 다른 하나는 청자가마의 新築段階에서 선택한 立地的 條件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서리의 경우는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방산동이나 원산리에서는 기본적으로 土器窯業이 진행되어 오던 곳에 청자가마를 신축하였다. 아마도 기존에 운영되던 지역을 활용하는 것이 匠人이나 磁土 확보 문제에 있어 새로운 곳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훨씬 용이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가마의 축조나 운영에 있어서 적어도 세 가마간에는 시기적

12) 현재 초기청자 편년자료의 하나인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소장의 '淳化四年(993년)' 銘항아리의 경우 日帝強占期부터 청자인지, 백자인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다. 그런데 이 발굴조사를 계기로 이 항아리가 원산리에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특히 순화명항아리가 청자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13) 한 개의 갑발이 가마바닥에 놓여지는 면적을 지름 약 20~25cm로 추정하였을 때 가마의 내벽폭 약 200cm에 놓을 수 있는 갑발의 적재수는 7개 가량이 가장 적당하다.

인 편차가 그리 크지 않았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물론 가마의 아궁이 모습이나 굴뚝부 외곽에서 볼 수 있는 시설물의 차이, 측면출입구의 방향성과 소성실 내부의 구조물 등, 약간씩 이나마 가마의 個性性을 찾아볼 수 있는 예들은 있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으로 가마들간의 시기적인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거리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地域性일 수도 있다.

2. 出土遺物의 比較

이제 앞에서 살펴본 방산동 가마 출토품의 예와 더불어 서리나 원산리에서 출토된 유물들 간에는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는지 고찰해 보기로 한다. 서리(圖面 4 참고)나¹⁴⁾ 원산리의 출토품(圖面 5 참고)은 확보할 수 있는 도면자료가 빈약한 관계로 비교가 가능한 예는 많지 않다.¹⁵⁾

· 鉢 - 발은 세 지역의 가마에서 골고루 확인되는 器種이다. 이들 지역에서 발견되는 발의 가장 공통적인 유형은 구연이 살짝 밖으로 외반하려는 느낌이 보이고 굽다리가 높은 계통이다(圖面 1의 발 ②, 圖面 4의 발 ①). 그런데 방산동출토의 외반이 심한 구연을 가진 발의 경우(圖面 1의 발 ①)는 다른 유적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서리 Ⅲ층의 內底圓刻이 있는 발(圖面 4의 발 ②) 역시 서리만의 독특한 발 형식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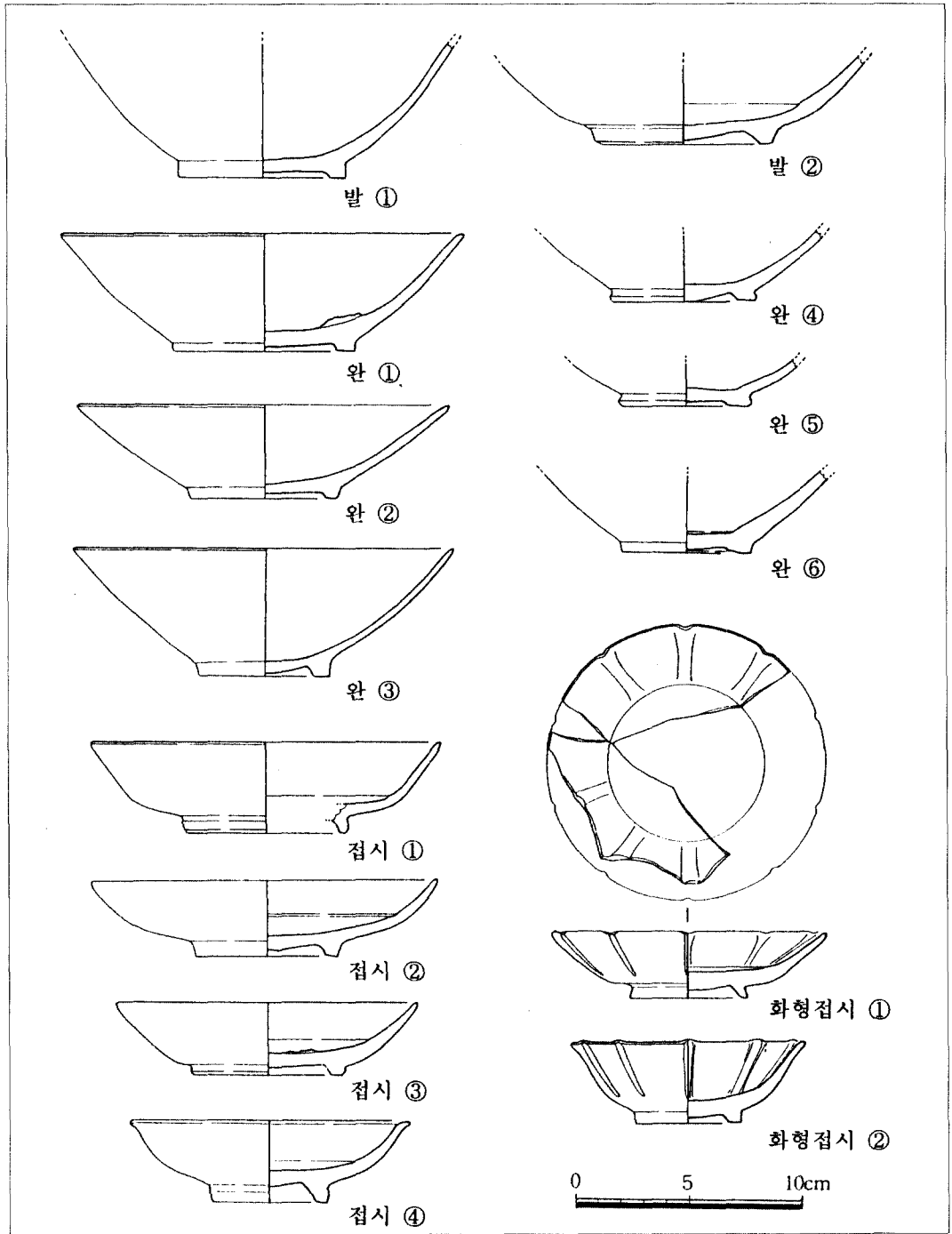
· 碗 - 출토유물중에서 가장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완이다. 완은 각 窯蹟마다 여러 가지 유형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서리에서 보이는 완의 종류가 가장 다양하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방산동에서는 측면의 경사각이 벌어진 계통에서 차츰 측사면이 급해지고 내저에는 원각이 생기는 방향으로 경향이 옮겨가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용인서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층위조사가 분명한 서리의 완형식은 측사면이 벌어지고 내저에 원각이 없으며 굽깎음새가 예리한 계통이 Ⅳ층에서 출토되는 반면(圖面 4의 완 ①, ②, ③), 시기가 늦은 Ⅲ층에서는 굽깎음이 둔중해지고 接地面이 넓어지며 내저에 원각이 생기거나 유사한 홈이 있는 완 계통이 주류를 이룬다(圖面 4의 완 ④, ⑤, ⑥).

결국 이러한 현상은 전축요계 초기청자중 완이 선해무리굽 계통에서 해무리굽 계통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고 하겠다. 특이한 점은 원산리 완의 경우 선

14) 용인 서리 출토품의 예는 博築窯 운영시의 생산폐기물이라고 생각되는 Ⅳ층, Ⅲ층 유물의 보편적인 기형을 대상으로 하였다.

15) 보고서나 자료에 수록되지 않은 유물은 비교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 이러한 경우는 해석상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각 유적의 층위간 유물의 변화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상황에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겠으나 그러하지 못한 것은 이 비교의 한계라 하겠다.



圖面 4. 西里 出土 鉢, 碗, 楪匙, 花形楪匙의 種類

해무리굽 계통은 확인되고 있으나 (圖面 5의 완 ①, ②, ③) 내저원각, 또는 해무리굽을 가진 완의 예는 알려지고 있지 않아 자료확보가 불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원산리의 제작양식이 달랐던 것인지 잘 이해할 수 없다.

· 花形樞匙 - 화형접시는 세 지역의 가마에서 모두 확인되고 있다. 방산동의 경우는 외면을 살짝 누른 것과 누름자국이 강렬한 것 모두가 시기의 차이 없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면서 후반부에 가서 누름자국이 완화된 형식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런데 서리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가장 이른 단계인 IV층의 퇴적에서 다른 가마유적에서는 볼 수 없는 구연을 살짝 오려내고 밖에서 눌러댄 형식이 보이고 있다(圖面 4의 화형접시 ①). 이 화형접시는 백자로서 서리에서 散見되는 다른 백자들과는 다르게 조선백자처럼 하얗고 질이 좋다. 또한 서리 III층에서는 방산동 화형접시의 ②유형 또는 ③유형과 유사한 유물이 발견되어 방산동의 출토 예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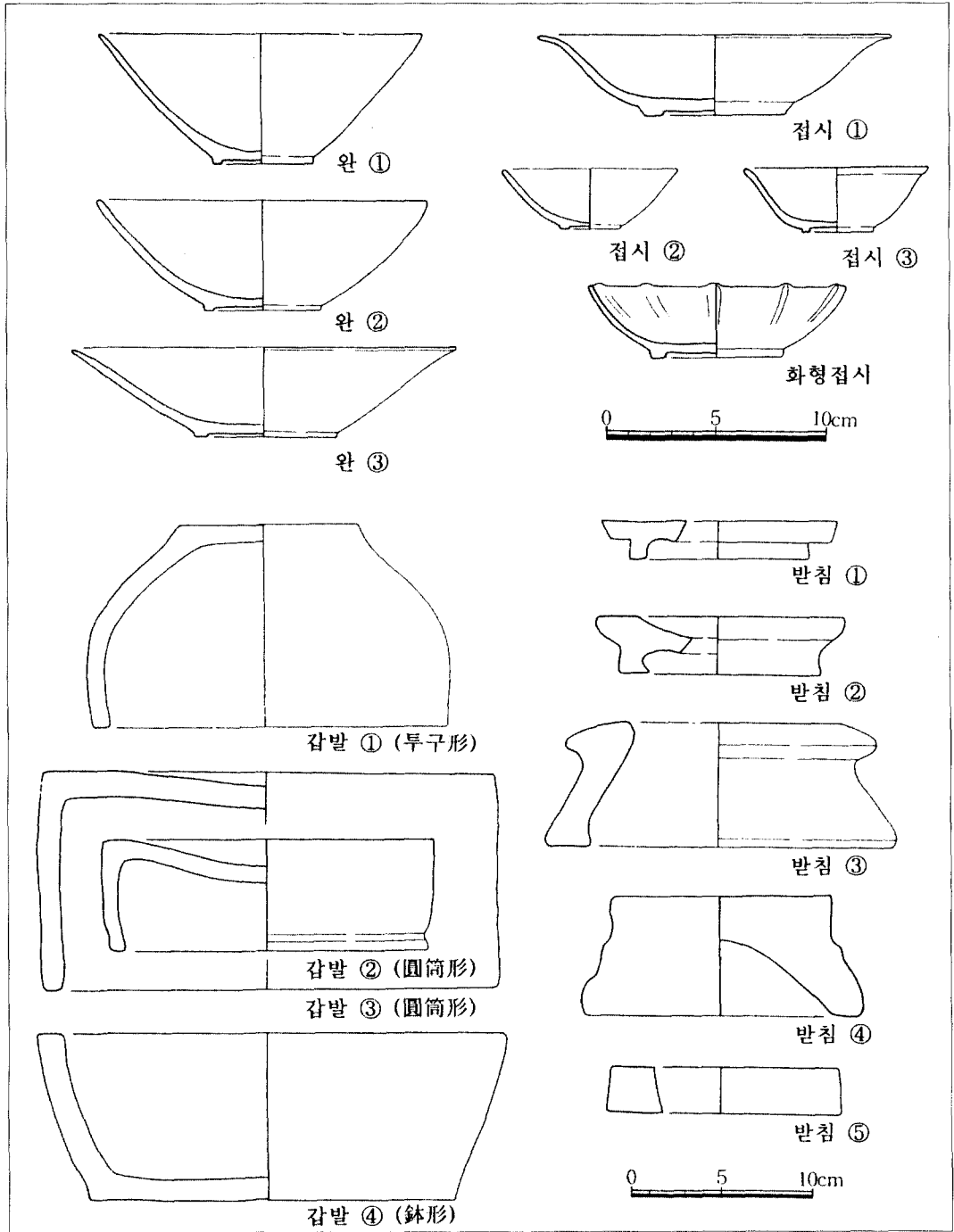
화형접시는 원산리에서도 여러 점 출토되었다. 특히 2호의 1차가마에서는 3점씩 포개어진 상태로 발견되기도 하였는데¹⁶⁾ 그 유형이 단순하다. 생김새는 折腰形의 소형접시 내외면을 凹凸形으로 강하게 누른 흔적이 보이며 전체적인 느낌이나 제작방식은 방산동의 ②유형과 가장 유사하다.

원산리 2호 1차가마에서 수집된 또 다른 화형접시의 유형으로 요철문양이 아닌 구연을 꽃잎처럼 오려낸 화형접시가 있어 주목된다. 이와같은 유형은 다른 가마터 출토된 예가 없는 관계로 원산리의 특징이라 할 만하다. 중요한 것은 유사한 형식의 화형접시가 고려의 3대왕 定宗(946~949년)을 장사지낸 安陵에서도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안릉출토품은 꽃잎 2장의 간격마다 외면에서 살짝 누른 흔적이 있다는 점에서 외견상 차이가 발견되지만 제작상태나 분위기는 수입청자가 아닌 국산으로 보이고 있어 원산리가마와의 관계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전축요에서의 화형접시는 측면선에 요철형 누름자국이 있는 유형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변형형식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樞匙 - 접시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눈에 띄는 것이 折腰樞匙이다. 이 접시는 側斜線의 변화가 심한 것이 특징으로 방산동에서는 執圈(고리형받침)을 받쳐 구운 예가 많이 발견되었다(圖面 2의 접시 ①). 그런데 같은 형식으로 보이는 서리의 절요접시는 고리형받침을 받쳐구운 예가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같은 기형이라 하더라도 제작지에 따라 굽는 방식은 다르게 적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산리의 경우는 이 접시의 제작 예가 알려져 있지 않다.

16)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12(1992), p. 307.



圖面 5. 圓山里 出土 碗, 碟匙, 花形碟匙, 窯道具類의 種類

이 밖의 접시는 종류가 다양하고 여기에 크기의 구분이 있으며 구연이나 굽 등에서 미묘한 차이가 보이는 관계로 일목요연하게 비교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전체적인 제작경향에 있어서는 대략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 窯道具類 - 요도구류는 용인 서리에서 알려진 예가 많지 않은 관계로 세 지역을 수평비교하기는 어렵다. 서리를 제외한 두 지역의 요도구를 보면 갑발에 있어서는 발형, 원통형, 투구형이 모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圖面 3, 圖面 5). 여러종류의 받침도구에 있어서도 대개는 비슷한 유형들이 보이고 있으나 다만 방산동에는 없는 구멍뚫린 소형받침(圖面 5의 받침 ①, ②)이 원산리에서는 발견되고 있어 이것이 가마간의 부분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예가 된다고 본다.

지금까지 출토유물의 비교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점은 기본적으로 가마에서 생산된 자기들의 器種과 器形의 변화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제작에 있어 세 지역의 가마간에 시간적인 격차가 거의 없거나 많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자료의 부재로 비교가 곤란했던 것을 제외하고 양식적인 차이가 느껴지는 유물이 있거나 다른 종류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는 시간적인 차이에서 오는 양식변화라기 보다는 각 가마가 갖고 있는 생산양식의 특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유구와 유물의 비교를 통해 추정되는 세 窯蹟의 상대적 선후관계는 약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선에서 거의 유사한 시기에 운영된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겠다.

IV. 中部地域 博築窯의 運營時期 推論

지금까지 앞장에서 방산동 유적 및 유물의 특징을 살펴보고 용인 서리, 배천 원산리의 가마구조와 출토품들을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내용을 보면 중부지역의 전축요는 개시시기와 폐요시기가 약간씩은 다를지라도 크게 본다면 한 시기에 이루어진 陶磁文化의 흔적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제 章을 바꾸어 그렇다면 이들 전축요의 구체적인 운영시기는 언제였을까 하는 의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전축요의 운영시기는 가마遺構를 통해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관계로 出土遺物의 樣式的인 비교를 통해 편년안을 推論해 보기로 하겠다. 이 편년안의 기준은 국내외에 남아 있는 편년자료에 의지하여 비교가 가능한 器形들을 대상으로 살펴볼 것이다.

가마자체가 중국적인 요소를 거의 그대로 들여와 축조한 것인만큼 유물에서도 대부분 중국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제 구체적으로 출토유물이 어떠한 편년자료와 관련이 있는지, 그

제작시기는 어느 때인지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出土遺物과 編年資料와의 比較

방산동 출토유물중에는 중국도자의 형태와 親緣性을 가진 도자가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의 청자나 백자와 완전히 동질감을 느끼게 해 주는 유물로서 注子類를 들 수 있다.

국내에서 출토된 주자는 두가지 형태가 알려지고 있는데 모두 전면발굴이 이루어졌던 방산동에서 수습된 것들이다. 그중에 하나는 구연이 나팔처럼 벌어지고 손잡이가 달린 주자 [이하 喇叭口緣注子] 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수직의 긴 목에 뚜껑이 얹히고 손잡이가 있는 주자 [이하 有蓋注子] 가 해당한다.

첫 번째 예인 방산동 <喇叭口緣注子>에서는 몸체중앙에 활처럼 휜 注口가 나와 있고 몸통과 구연사이에는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으며 몸체에는 참외의 골과 같은 4줄의 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圖 3, 圖 4, 圖面 2의 주자 ①). 그런데 이와 거의 같은 모습으로 판단되는 중국의 편년자료가 있어 눈길을 끈다. 우선 중국 浙江省 寧波에서 출토된 <喇叭口緣注子>는 '大中二年(848)'에 제작된 것으로서 아주 세부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造形感이 거의 일치된 모습을 보여 준다(圖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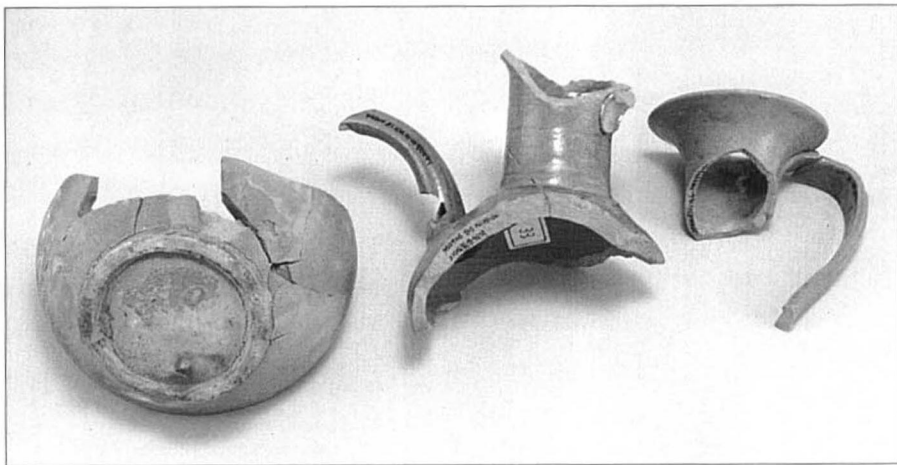


圖 3. <青磁注子:喇叭口緣>, 9세기 후반~10세기, 始興 芳山洞 青磁窯址 出土, 海剛陶磁美術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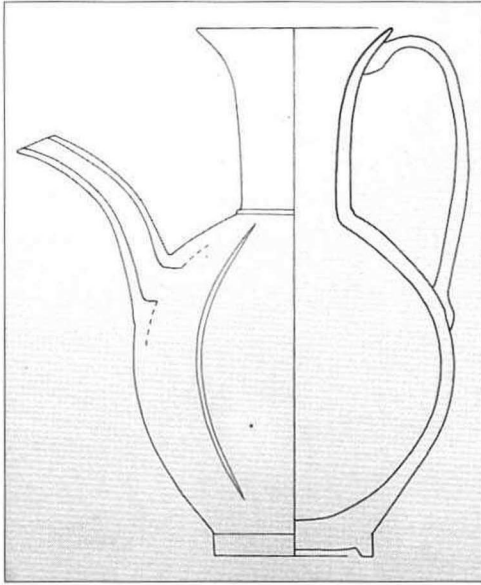


圖 4. <靑磁注子 復元圖:喇叭口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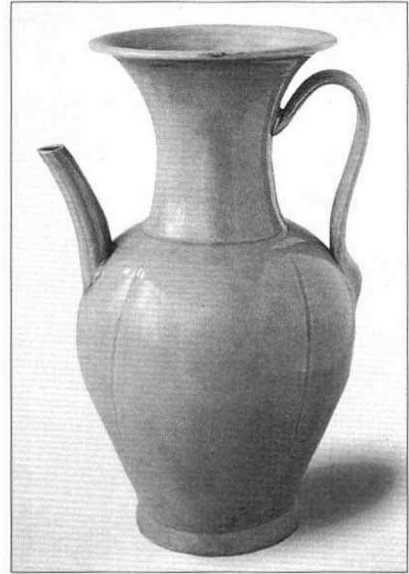


圖 5. <靑磁注子>, 唐, 848년, 中國 浙江省 寧波 出土

또한 같은 형태를 갖고 있는 또 다른 예로 上海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는 주자의 경우는 표면에 '會昌七年改爲大中元年(847)'이라는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¹⁷⁾ 아마도 방산동의 청자주자를 이들과 함께 놓는다면 어느 나라의 생산품인지 구별이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喇叭口緣注子は 대략 9세기 중반경의 제작 예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주자형태인 방산동의 <有蓋注子>는 둥근 몸체위에 직립한 구연이 있고 그 위에 왕관형의 뚜껑이 없던 형태가 기본을 이룬다(圖 6, 圖 7, 圖面 2의 주자 ②). 이와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중국주자의 고전적인 타입은 晚唐期에 奉化에서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예가 있으나 뚜껑이 납작하고 주구가 꽃혀 있는 방향이 거의 직립해 있어 분위기가 다르다.¹⁸⁾ 그로부터 시간이 경과하여 五代에 이르면 주자의 몸체는 약간씩 통통해지고 뚜껑은 왕관형으로 길쭉해지면서 특히 뚜껑의 하단부에 두 개의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는 방향으로 변모한다.¹⁹⁾ 방산동 주자의 경우처럼 형태와 크기, 생김새에서 가장 일치하는 편년자료는 遼寧省 赤峰市에서 출토된 遼衛國王 駙馬墓 출토의 <白磁注子>에서 찾을 수 있다(圖 8). 墓誌가 동반된 이 유물은

17) 林士民, 『靑瓷與越窯』(上海古籍出版社, 1999), p. 35의 사진 125 참고.

18) 林士民, 위의 책(上海古籍出版社, 1999), p. 22의 사진 76 참고.

19) 宋代에 磁業으로 유명했던 耀州窯의 前身이 五代의 黃堡窯址이다. 오대의 황보요지에서는 전시기에는 보이지 않던 뚜껑에 구멍이 뚫리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책이 참고가 된다. 陝西省考古研究所, 『五代黃堡窯址』(文物出版社, 1997).



圖 6. <青磁注子:有蓋>, 9세기 후반~10세기, 始興 芳山洞 青磁窯址 出土, 海剛陶磁美術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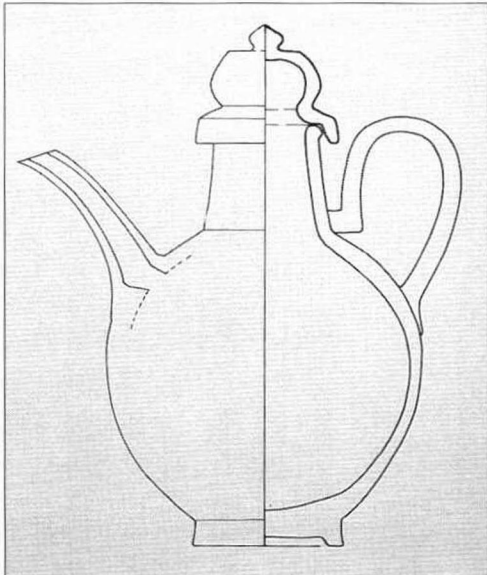


圖 7. <青磁注子 復元圖:喇叭口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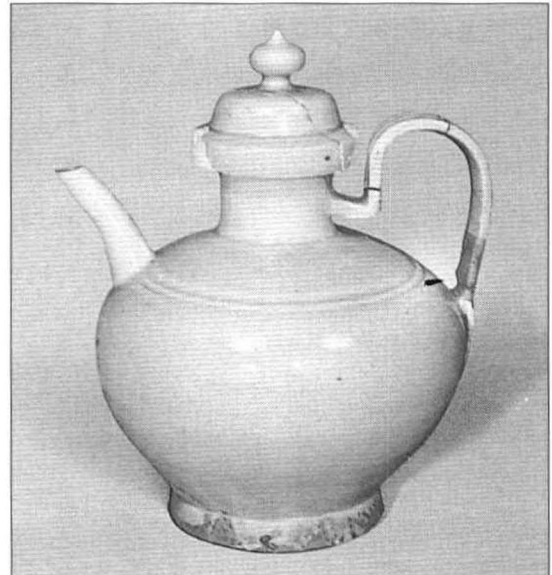


圖 8. <白磁注子>, 遼, 959년, 中國 遼寧省 赤峰市 出土

959년이라는 下限을 갖고 있으며 材質이 백자라는 것만 다를 뿐 제작상태는 방산동 출토품과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본다면 有蓋注子の 경우는 喇叭口緣注子와는 다르게 제작시기가 상당히 내려오는 10세기 중반대의 편년자료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에 만들어진 10세기 후반대의 중국 편년자료들은 하나같이 표면에 문양이 많아지고 몸체가 통통해지고 있어 방산동 유물이 10세기 후반의 자료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편년유물과 비교가 되는 또 하나의 자료는 花形鉢에서도 보이고 있다. 화형발은 말 그대로 꽃모양의 형태로 만든 鉢로서 방산동에서는 完形이 아닌 파편이 발견된 바 있다(圖 9. 圖面 1의 발 ③). 이 鉢은 釉色이 綠色을 띠며 굽이 높고 몸체에는 참외의 조형을 모방하려 한 듯 몇 줄의 누름선이 세로로 나 있다. 그런데 이와 비교되는 출토예로서 安陵 출토의 <花形鉢>은 原形을 추정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圖 10). 안릉은 고려 3대왕 定宗(945~949년)의 능으로 현재는 개성시 개풍군 고남리에 소재해 있다. 이 화형발은 이곳에서 여러 유물들과 함께 동반되어 발견되었으며 949년의 下限을 갖는다. 안릉출토 화형발이 갖고 있는 특징은 구연 다섯 곳을 살짝 오린 5화형의 형태를 하고 있고 옆면에는 밖에서 누른 세로줄의 골이 패여 있으며 굽은 높은 편이다. 전체적인 유색이나 제작분위기가 정연하고 예리하여 국내산이 아닐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으나 양자간의 조형적인 유사성을 비교하는 것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유사한 형태로 추정되는 화형발이 원산리에서도 출토되어 흥미를 주고 있다(圖 11의 좌). 원산리의 <花形鉢>은 깨진 상태의 일부가 발견되어 복원하였지만 기본적으로는 안릉 출토품과 동일한 유형으로 판단된다. 이 유물은 방산동이나 원산리에서 10세기 중반의 편년 자료와 일치하는 도자기를 생산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좋은 증거자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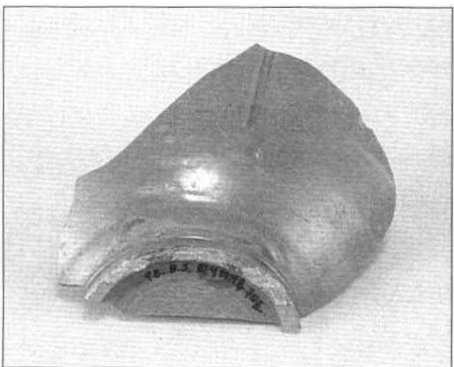


圖 9. <青磁花形鉢>, 9세기 후반~10세기
始興 芳山洞 青磁窯址 出土, 海剛陶磁美術館



圖 10. <青磁花形鉢>, 949년 이전
開城市 開豐郡 古南里 安陵 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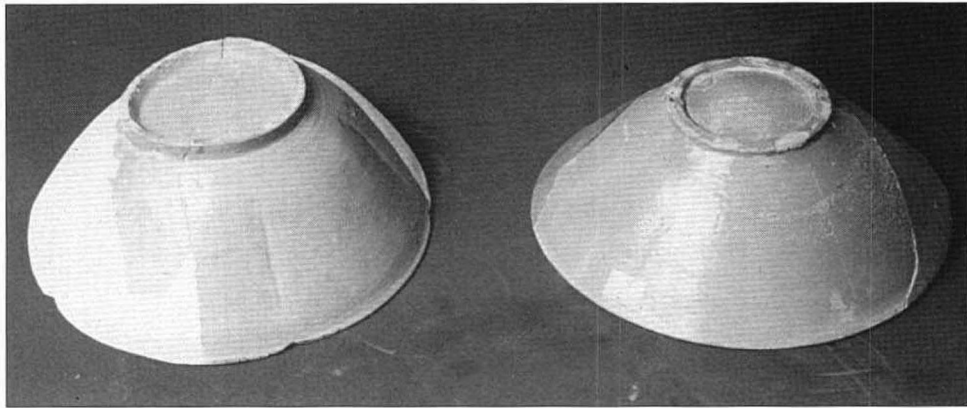


圖 11. <靑磁花形鉢:사진 좌>, 10세기, 黃海道 培川郡 圓山里 靑磁窯址 出土



圖 12. <靑磁盞托>, 949년 이전
開城市 開豐郡 古南里 安陵 出土

安陵에서 발견된 또 하나의 중요한 유물로는 盞托이 있다(圖 12). 이 잔탁의 기본형은 잔을 놓을 수 있는 가운데 부분이 고려말기 청자에서 볼 수 있는 대접내면의 圓刻처럼 둥글고 깊이 패여 있으며 약간의 斜面을 이루는 잔대와 직립한 구연, 그리고 밖을 향해 벌어진 다리로 인하여 金屬器를 모델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비록 파편이기는 하나 같은 형식의 잔탁이 시흥 방산동 가마에서도 여러 점 수습되어 동일한 양식이 생산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고(圖 13. 圖面 2의 ①), 역시 원산리 2호 3차가마에서도 이와 같은 형식의 파편이 발견된 예가 알려져 있다.²⁰⁾ 그리고 이와 똑같은 모양을 가진 편년유물의 하나로 臨安市에서 발견된 940년경의 잔탁이 현재 浙江省博物館에 소장되어 있어 대체로 10세기 중반대에 이와같은 잔탁이 중국과 우리

나라에 유행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안릉 출토의 화형발과 더불어 잔탁의 존재는 방산동이나 원산리에서 유사한 시기에 비슷한 양식의 기형을 생산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봉천군 원산리 자기가마터』, 『조선유적유물도감』 (1992), p. 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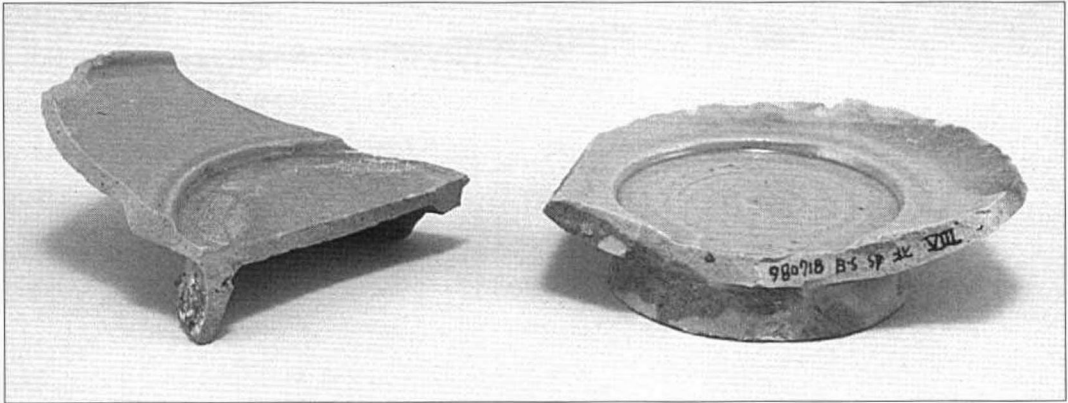


圖 13. <靑磁盞托>, 9세기 후반~10세기, 始興 芳山洞 靑磁窯址 出土, 海剛陶磁美術館



圖 14. <執圈의 使用 例>, 9세기 후반~10세기
始興 芳山洞 靑磁窯址 出土, 海剛陶磁美術館



圖 15. <靑磁「太平戊寅」銘碗片>, 978년
中國 浙江省 慈溪市 出土

이밖에 방산동에서는 특히 고급도자기를 구울 때 사용하는 執圈(=執環 또는 고리반침)이 대단히 많이 발견되었다(圖 14, 圖面 3의 고리반침). 집권이란 匣鉢내부에 도자기를 넣어 구울 때 굽다리 부분의 釉藥面이 갑발의 上部에 닿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고리를 만들어 굽 내면에 받쳐 넣었던 도구를 말한다. 그렇게 되면 굽이 耐火土에 의해 거칠게 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어 고급도자기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窯道具와 관련하여 중요한 편년자료가 알려져 있다. 월주요를 관할했던 吳越國은 978년 결국 北宋에 흡수, 편입되는데 그 시기에 마지막으로 월주요에서 구웠으리라 추정되는 도자기들의 굽에 하나같이 執圈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다(圖 15). 浙江省 慈溪지방에서 발견되는 이 완들의 굽에는 내면에 '太平戊寅'이라는 흘려 쓴 음각서체가 새겨져 있어

978년경에 執圈을 이용한 燔造法이 성행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명문의 내용대로 집권은 10세기 후반대에만 사용된 것일까? 1970년대 후반에 江西省歷史博物館이 중국 江西省의 豐城羅湖窯를 조사한 결과를 인용하면 唐代에도 窯道具의 발달이 진일보한 상태였으며 소개된 자료에는 분명히 執圈의 예가 소개되고 있다(圖 16의 9, 10, 11).²¹⁾ 그렇다면 이미 唐 시기에 執圈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며 五代期에 와서 보다 보편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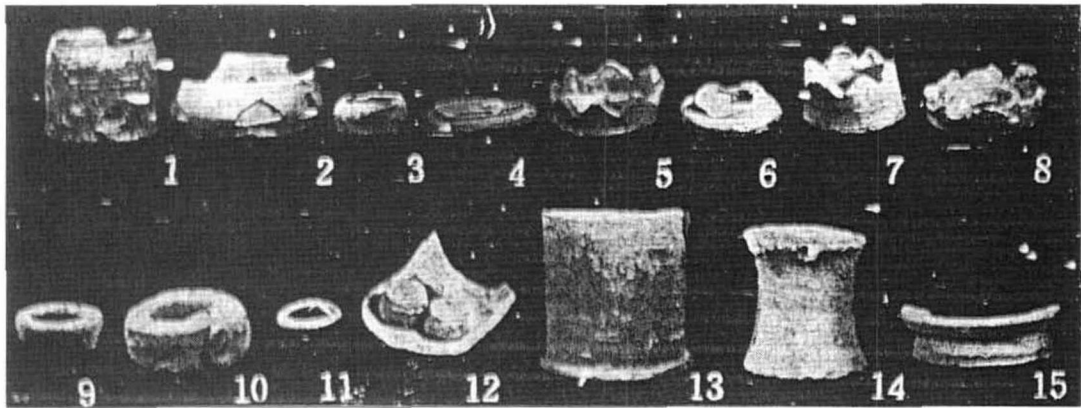


圖 16. <豐城羅湖窯 出土 窯道具 一括>, 唐, 中國 江西省歷史博物館 調查品

지금까지 유물비교를 통해 편년자료와 일치하는 기형들이 빠르면 9세기 중반의 예와 유사하거나 늦으면 10세기 후반과 비슷하게 전개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조형양식이 친연성을 갖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시기는 10세기 전반경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이제 몇가지의 자료를 더 보충하여 전축요의 운영시기에 대한 시간대의 폭을 좀 더 좁혀 보도록 하겠다.

2. 塼築窯 運營時期的 推論

유물의 비교대상이 되는 편년자료는 아니지만 제작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발굴조사품이 있다. 1998년 단국대학교에서 발굴조사한 利川 雪峰山城에서는 중국의 邢窯생산물이라고 추정되는 白磁碗이 발견되었다(圖 17). 중요한 것은 이 유물이 ‘咸通’ 銘石製風字硯이 발견

21) 江西省歷史博物館·豐城縣文物陳列室, 「江西豐城羅湖窯發掘簡報」, 『中國古代窯址調查發掘報告集』(文物出版社, 1984), pp. 73~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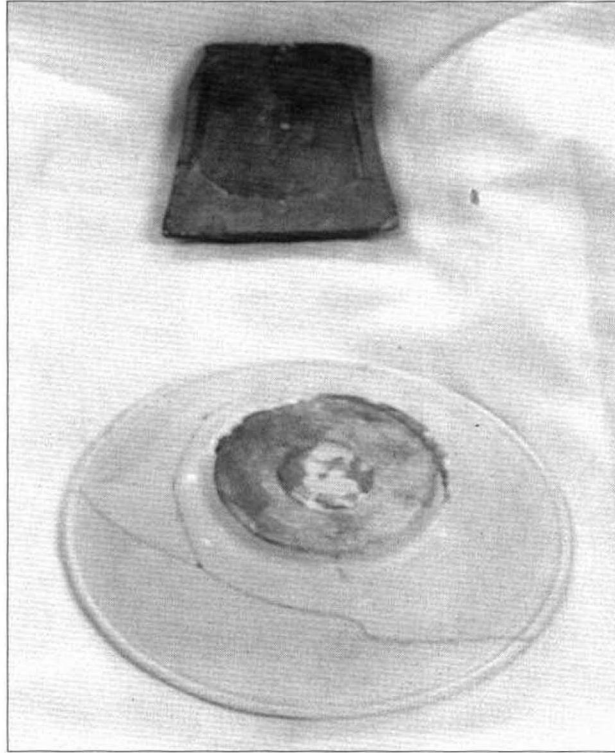


圖 17. <白磁碗>, 唐, 9세기 중엽, 邢窯産, 利川 雪峰山城 出土品

된 지역에서 함께 출토되었다는 사실인데 咸通은 唐 懿宗(859~873년)의 연호로 벼루에는 각각 咸通 6年, 7年, 9年이라는 음각명문이 있었다.²²⁾ 이 연대는 각각 865, 866, 868년으로 9세기 중반경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중국의 백자가 발견된 곳에서 다른 유물이 동반되어 출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자나 백자는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천 설봉산성은 용인서리 가마터와 여주 중암리 가마터가 가까이에 있으며 또한 충북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관할 할 수 있는 요지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이 산성의 지배계층이 당시 중국유물을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국내산 청자나 백자를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여기에서 국내산 자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은 9세기 3사분기경까지 중부지역에서 아직 磁器質 窯業이 시작되지 않았던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2) 『이천설봉산성 1차발굴조사 보고서』(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이천시, 1999), pp. 262~265의 내용참고, p. 78의 사진 27번, p. 334의 사진 173번 참고.

한편 지금까지 살펴본 세 지역의 출토품 중에서 특히 방산동의 편년추정이 가능한 자료가 있어 밝혀두고자 한다. 방산동 가마터 퇴적에서는 비록 퇴적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던 표준 퇴적층에서 수습된 것은 아니었지만 간지로 밝혀진 예가 수습되어 관심을 끌었다. ‘甲戌’銘 청자뚜껑편이 그것으로 이 파편은 향아리뚜껑의 한 예로 보이며 명문은 굽처럼 튀어나온 부분 안쪽에 음각으로 흘러썼다(圖 18, 圖面 2의 뚜껑 ②). 甲戌은 書記 854년, 914년, 974년 등에 해당하는데 이 중에서 실제 紀年에 해당하는 시기는 현재까지 다른 유물의 양식적인 공통



圖 18. <靑磁「甲戌」銘뚜껑편>, 9세기 후반~10세기
始興 芳山洞 靑磁窯址 出土, 海剛陶磁美術館

분모가 가장 많은 10세기 전반의 시기인 914년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유물이 방산동 요업시기의 최초단계인지, 아니면 마지막 단계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파편이 갖고 있는 특징상 방산동 유물의 변천단계를 전, 중, 후기로 나누어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유물이 조질화되는 후기적인 상황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10세기 전반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전축요들이 폐요하는 시점에 관하여는 이미 알려진 중요한 편년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소장의 <靑磁‘淳化四年’銘향아리>와 원산리 2호 4차가마터 출토의 <靑磁‘淳化三年’銘高杯>는 각각 993년 992년의 紀年을 갖는 편년자료로 그 출토상황과 의미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圖 19, 圖 20). 중요한 것은 太廟의 무덤에 제사를 지내기 위한 祭器의 제작이 992, 993년에 집중되고 있으며 994년 이후의 제기를 만든 예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이 가마의 最上層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이었다.²³⁾ 따라서 대체적인 전축요의 운영상황이 비슷한데다 하한을 결정짓는 편년자료가 확인됨에 따라 전축요의 수명은 10세기말 늦어도 11세기 초반을 넘지 않았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용인 서리의 가마는 제작방식을 白磁專用 생산가마로 바꾸어갔고 가마의 구조 역시 토축요로 변환시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 갔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적으로 방산동에서 수습된 요도구중에는 대단히 관심을 끄는 銘文이 있어 이를 살펴보

23) 원산리에서 출토된 명문자료의 제작배경과 출토상황, 의미 등에 대하여는 다음의 글을 참고할 것. 南秀雄, 「圓山里窯蹟と開城周邊の靑磁資料」, 『東洋陶磁』VOL.22(東洋陶磁學會, 1992~1994), pp. 105~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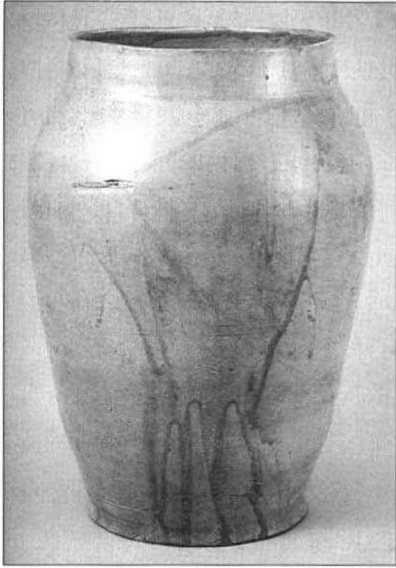


圖 19. <青磁「淳化四年」銘壺>, 993년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圖 20. <青磁「淳化三年」銘高杯>, 992년
黃海道 培川郡 圓山里 2號 青磁窯址 出土

기로 한다. 명문이 쓰여있는 유물은 圓盤形匣鉢받침으로 표면에는 '奉化'라는 음각글씨가 장난스럽게 쓰여 있다(圖 21. 圖面 3의 갑발받침 ②). 奉化는 현재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地名 이외에 별다른 단서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만약에 봉화가 지명이라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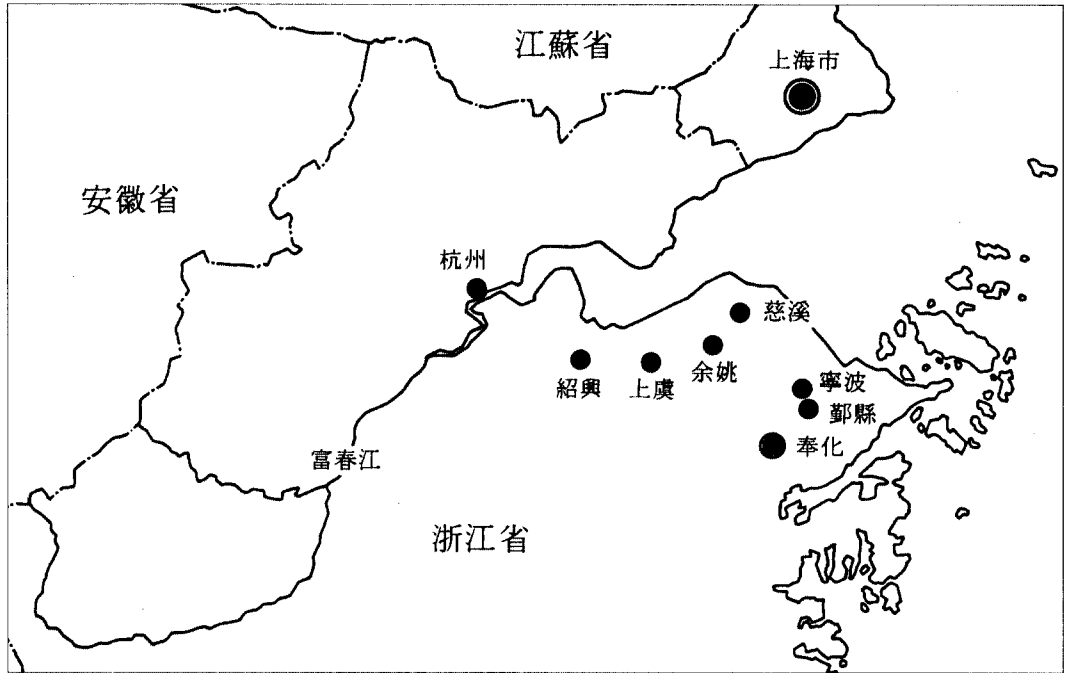
봉화는 현재 浙江省 북동부의 寧波 밑에 위치한 도시로 중국에서 연구된 자료에 따르면 五代 초기부터 본격적인 요업활동을 개시한 지역이다.²⁴⁾ 『中國地名辭典』에 따르면 봉화는 唐 초기에 鄞縣에 속했다가 8세기 전반인 開元년간에는 새로이 奉化縣이 설치되었으며 元代에 升州로 바뀌었고 明初에 봉화로 복원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地圖 2 참고).²⁵⁾



圖 21. <「奉化」銘匣鉢받침>, 9세기 후반~10세기
始興 芳山洞 青磁窯址 出土, 海剛陶磁美術館

24) 林士民. 앞의 책(上海古籍出版社, 1999), pp. 202~218.

25) 『中國地名辭典』(上海辭書出版社, 1990).



地圖 2. 奉化의 位置圖

그렇다면 이 명문으로 볼 때 중부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청자요업상황을 보여주는 방산동은 봉화지역의 청자기술을 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중부지역에 벽돌가마의 축요방법과 생산양식을 전해주던 原流가 어디인지를 추측하게 해 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본다면 중부지방의 전축요에서는 9세기 중반경에 요업을 한 증거가 확인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방산동 출토 ‘甲戌’ 銘靑磁片의 예와 여러 유물이 보여주는 편년자료와의 동질관계는 전축요가 대략 10세기 전반경에는 왕성한 활동단계에 들어갔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렇게 진행된 전축요는 ‘淳化’ 銘靑磁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10세기 말이나 11세기 초반경에 폐요되었다고 보아도 크게 무방하지 않으리라 판단된다.

V. 맺음말

지금까지 芳山洞 가마의 유적과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龍仁 西里와 培川 圓山里의 예를 비교하면서 편년자료와의 상관성을 통한 전축요의 운영시기를 추정해 보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전축요의 성격을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겠다.

중부지역 전축요의 하나인 방산동 유적과 출토유물은 당시의 생활면까지 드러내는 전면발굴조사를 실시한 까닭에 전축요의 구조와 생산양식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조사에서는 가마의 세부적인 구조와 더불어 新築으로부터 수차에 걸친 改築과정이 낱낱이 조사되었으며 특히 퇴적층 조사를 통하여 층위간 유물의 변화양상을 잘 파악할 수 있었다.

예전에 발굴조사되었던 용인 서리와 배천 원산리는 조사상태가 미흡한 점이 많았으나 방산동 유적, 유물과의 비교에 도움이 되었다. 가마유구로 본 비교에서는 가마의 입지적 조건, 규모의 일치, 개축과 보수, 폐요과정에서 거의 동일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것은 전축요계열의 가마들이 신기술의 이해가 탁월했던 기술집단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그로인해 동시다발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생산품에 있어서는 일부의 예를 제외하고는 생산기종, 변화양상이 비슷하여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뒷받침해 주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방산동 유물은 전축요의 운영시기를 추정하는데 부족함이 없으리라 판단하였으며 국내외의 편년자료와 비교해 본 결과 10세기 전반과 중반경의 編年資料와 일치하는 빈도가 가장 높았다. 전축요의 운영에서 上限에 관한 문제는 방산동 출토 ‘甲戌’ 銘靑磁破片의 존재(914년 추정)와 출토상황을 통해 9세기 후반-10세기 초반으로 상정하였다. 그리고 下限시기는 원산리 출토 ‘淳化’ 銘靑磁類의 존재(992, 993년)와 출토상황을 언급하면서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초반에 폐요되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10世紀는 전축요가 가장 왕성한 활동을 했던 중심시기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중국적인 도자전통의 뿌리가 이식 또는 번안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의 원류는 시흥 방산동에서 발견된 ‘奉化’ 銘資料를 볼 때 중국 浙江省 越州窯 가마군 중에서도 五代初에 본격적으로 요업을 개시한 奉化일대의 기술이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해 보았다.

이 글은 양식비교를 통하여 중부지역 전축요의 운영시기를 추정한 것으로 절대편년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한 시도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여력의 부족으로 이러한 요업이 가능했던 이유와 그 主體勢力, 남부지역 생산양식과의 관계 등은 전혀 고찰하지 못하였다. 한반도의 초기청자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러한 고찰이 병행되어야만 실체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차후 필자의 과제가 될 것이다.

* 본문에 사용된 圖面은 海剛陶磁美術館의 장기훈 연구원이 作圖한 것이다.

[ABSTRACT]

Dating Brick-built Kilns in the Central Region of Korea Based on the Evidence from the Pangsán-dong Site, Sihŭng

Lee Jong-min

One of the notable phenomena in the early stage of Korean celadon manufacture is brick-built kilns concentrated in the central region.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ese kilns were linked to the Chinese ceramic industry in terms of its materials and construction method and that they were significantly distinct in many ways from clay kilns found in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A kiln of this type are discovered at Pangsán-dong 芳山洞 in Sihŭng 始興 in 1997-1998. Very well preserved relatively intact, it appears to be a milestone in the investigation of the early celadon manufacture in Korea. Three kilns were excavated at Pangsán-dong, one for celadon and the other two for earthenware. The celadon kiln was approximately 130 feet in length and seems to have undergone two massive repairs. The earthenware kilns are dated earlier than the celadon kiln and display structural similarities with those operated during the Unified Silla period.

Within the heaps of discarded shards between the kilns for the celadon and the earthenware, more than ten strata were detected. The lowest strata contained mostly earthenware shards, which were overlaid by a large number of *kappal* (shielder) fragments and celadon shards along with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white-porcelain shards. They show the incessant transition from the earthenware to the celadon. The celadon kiln yielded mainly soup bowls, tea bowls, and plates.

As regards the structure of the kiln and the manufacture-technique of porcelain, the celadon kiln display bot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compared with the Sŏ-ri 西里 site found in Yongin 龍仁市 excavated in 1980 and the Wŏnsan-ri 圓山里 site in Paech'ŏn, Hwanghae Province discovered in 1989 to 1990. Several points could be drawn from the research on the Pangsán-dong site in conclusion.

First, the extensive evidence from the excavations of the Pangsán-dong kiln

suggests that the Chinese ceramic technology was enthusiastically embraced, especially in the structure, style, and firing method. The styles seem to have been diversified in various regions despite initial similarity.

Second, although the structural properties provide no definite temporal sequence, the styles of the finds strongly indicate the kilns at Pangsán-dong, Sŏ-ri and Wŏnsan-ri were contemporaneous.

Third, the evidence from the Pangsán-dong kiln indicates that the first use of brick-built kilns is datable to the end of the 9th and the beginning of the 10th century. The cyclical year *kabsul* 甲戌 on a fragment should be dated to 914 in stylistic comparison.

Fourth, the brick-built kilns in the central region including the one at Pangsán-dong were most active during the 10th century, but stopped activity at the end of the 10th century or the beginning of the 11th century except for the Sŏ-ri kiln.

Fifth, the inscription *Ponghwa* 奉化 found at the Pangsán-dong site could be equated with the Chinese region Penghua, which was quite active in ceramic industry during the Five Dynasties and early Northern Song periods in *Yuezhou* in Zhejiang Province. Perhaps this indicates the origin of the brick kilns transmitted to Korea in this period.